

2023.7.2 주일2부
광야의 집중 (신1:30-31)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3차 일본순회캠프가 재개되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에 일본에서 노조미상이 왔어요. 이분이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집중하는데 이 분이 메시지를 통역 없이 거의 다 알아들더라. 얼마나 알아들냐고 했더니 95% 알아 듣는데. 한국말을 공부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아, RTS 가려고 하는거구나' 안 그러면 미쳤다고 한국어 합니까. 한국에서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노조미상 RTS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에 RTS 졸업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섯 명이예요. 마리아, 요시아, 고토, 유리에 그 다음에 노조미상이 앞으로 갈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본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나오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노조미상이 와서 신주쿠그리스도의교회 사정을 얘기하더라도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옥희 목사님 하고 이은실 준목 보고 가라고 했어요. 이번부터는 3주씩 가라. 왜냐면 한 주간 가면 아무 것도 못해요. 가서 온천하고 인사하고 가야 돼. 그래서 3주간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매달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9월엔 이성지 전도사 하고 김윤정 집사님 보내려고요. 김윤정 집사님이 일본에서 대학 나온 분이예요. 일본 가서야 한다고 했더니 가겠다고 하더라. 김희경 권사님도 가서야 해요.

구니무라 목사님이 일본 들어가실 때 지바 쪽으로 개척하신다고 했는데 신주쿠에다 개척을 하셨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일본의 최대 유흥가예요. 노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또 신주쿠가 어디냐면, 한국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코리안타운이예요. 삼겹살, 닭갈비 이런 거 먹는 데예요. 기도하는데 신주쿠를 우리 죽전동부교회 교구로 넣어야 되겠다. 제 3교구 해서 신주쿠 넣으려고요. 교구장에 김옥희 목사님을. 그 마음을 담고 하셔야 해요. 왜냐면, 구니무라목사님, 마리아전도사는 가족이예요. 아주 중심이 좋으세요. 인본주의 잘 안 쓰세요. 기도하시구요.

신주쿠는 죽전동부교회의 교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한국사람들이 살잖아요. 버려진 그 황금어장이 우리 교구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사역하고 구니무라 목사님한테 맡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김옥희 목사님은 현장파잖아요. 김옥희 목사님은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 있어요. '귀신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신주쿠에서 권사님 한 분 만났거든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부산임마누엘교회 다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가게해서 그거 봐주느라 왔다갔다 한대요. 류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귀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렀다더라. 자기가 일본 왔더니 여긴 완전 귀신이라. 그 권사님 얘기예요. 다락방 멤버들 다 무너져있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김옥희 목사님이 가서 '귀신 있는 거 아세요?' 하더라. '저요, 저요' 하더라. 다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대요.

두 번째 영상 "떼제 공동체" 영상 봤다. 류목사님이 계속 얘기한다. 유럽 안된다고. 교회 팔리고 있고 청년들 교회 안 온대요.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도 유럽 힘들다고 한다. 유럽은 건물 못 바꾼다. 그런데 내부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는 교회인데 내부는 술집이다. 저도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노조미상이 와서 떼제 얘기를 하더라. 프랑스 남부에 작은 마을이다. 거기에 1년에 30만명이 왔다 간대요. 그럼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3천명에서 만명이 오는거다 청년들이. 그게 신앙공동체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2차세계대전 터졌잖아요.

로제라는 개신교 목사가 시작한거다. 이 사람이 보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서로 총질을 하나 말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거다. 예수가 뭐냐? 신앙이란 뭔가? 이래서 시골에 집 얻고 침묵하기 시작한거다. 명상 속으로 들어간거다. 답을 찾은거야. 화해. 화해해야돼. 그리고 용성 해야 돼. 그거 얘기하는데 30만명이 모여요. 나는 유럽이 안 된다는 거 거짓말인거 알았어요. 청년들이 떼거지로 몰려든다. 화해운동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답도 없잖아요. 1,2차 세계대전 왜 터졌습니까? 완전히 휴머니즘 시대가 왔어요. 인본주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없다. 인간 중심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미쳐서 싸우는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묵상공동체를 만든거다. 요즘 청년들 답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인생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창조해야 될지를 몰라요. 부모가 시키는대로 살아왔다. 남들 압박에 의해 살다가 정작 나를 찾지 못하는거다. 이 사람들이 불려서 답을 주는거다. 그 조그만한 데에 30만명이 구름떼처럼 몰려든다. 영적인 것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초교파운동을 한다. 개신교, 천주교 안 가리고 다 받아요.

앞으로 교회 문 다 닫게 된다. 모든 프로그램 다 닫는다. 그런데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게 묵상이다. 프로그램 다 끝나요. 다 지나가요. 잘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교회만 안 돼. 그런데 일본 가보면 중요 도시마다 큰 명상센터가 자리 잡았다. 주로 불교에서 하는 건데요. 백만 명씩 모여요. 지하에 영파지광 있지 오사카에 피엘교단 있지요. 이게 일본 열도 안에 깔려있다. 교회는 안 돼. 지나다가 교회는 뭐 하나 봤더니 상담프로그램 하고 있어. 안될 겁니다. 왜냐면 유럽은 모델이예요. 예전에 일본이 부동산 어렵 오는데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돈 흐름 타는 사람들은 선진국 연구해요. 왜냐면 선진국이 간 길을 그대로 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가? 유럽은 마약 열었어요. 대마 같은 건 그냥 해요. 대마 하면 약하잖아요. 히로뽕 같은 거 해요. 그리고 완전히 프리섹스예요. 우리가 유럽 가서 동성애 얘기하면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 왔냐 이런다. 왜냐면 섹스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그게 문화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제공 안 하냐면, 이 청년들이 엄청난 방향한다. 마약 하면서 인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타락 하면서 인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용하게 인생을 찾는 장소가 없어요. 붙잡고 뭘 하려고 하지 그 아이 스스로가 인생을 찾아야돼. 그걸 떼제에서 했다. 쉬운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해.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이제 문 다 닫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 두 가지다. 그 하나가 명상이다.

저는 확인했다 중국 가서. 98년도에 갔는데 그 광장에 수백명이 모여서 다 이려고 있어. 뭐하냐 저 사람들. 기공한다는 거야. 그게 일 혁명 장악했다. 중국 공산당 숫자 보다 많아졌어. 잡아라 이렇게 나온거야. 그래서 파룬궁 엄청 두들겨 잡았다. 잘 한거지. 귀신운동 하면 큰일나는데. 잘 결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는가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십 년 전이지요. 진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 보고 오라는거야. 백옥복 권사거든.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들어와서 시집갔다. 어디로 팔려갔냐면 진안으로 팔려갔다. 그래서 시집은 가고 싶어나보다 했다. 거기서 다락방 한다고 핏박 받으니까 제가 생각났는지 와 달라 한거다. 그래서 보냈다. 한 전도사님 보내고. 저도 별생각 없이 잘 갔다 오셨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때 본부에 메시지가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 지내오면서 확 바뀐 거예요. 모든 훈련 속에 집중이 들어가는 거다. 대전에서 했잖아요. 전도집중훈련 하고. 합속도 집중으

로. 전도신학원도 집중신학원으로. 싹 바뀌었다. 그때부터 제가 교역자들과 집중하러 들어갔다.

그러다 제가 어느날 진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다. 집사람 보고 진안으로 이사해라 얘기했다. 도시여자 보고 서울 여자거든요. 시골에 가라니까. 애들도 네 명 아닙니까. 내가 얘기했다. 내가 아무래도 현장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김동권 목사님이 왜 내려가, 안양으로 와야지. 진안이 어디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집사람한테 압박하는거야. 야 요즘에 너 내려가면 이상한 여자들 많은데 김구를 유혹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 안 듣고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혹시 안 가라 하면 안 가려고 그런데 메시지가 자꾸 가래. 그래서 간거지. 집도 남의 집 2층에 10평도 안돼요. 거기 얻었다. 거기에서 생활한거지.

그런데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진안공동체를 위해서 내려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떼제공동체. 진안공동체. 진안에서 영적인 눈 열어줘야 돼요. 불교에서 명상해서 귀신들리게 네피림운동 한다. 뉴에이지팀들이 인생얘기 하는 것처럼 접근해요. 생존하려면 누가 돈 줘니까 일 해야지. 자려면 집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닦치는대로 하는거야. 그리고 편안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네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다. 짧은 말인데 확 부닥쳐. 그걸 네 스스로 찾는거야. 이렇게 딱 목을 걸고 귀신한테 데려가서 네피림으로 만들어버려. 네가 신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이런다. 무서워요. 네가 석가 믿는 게 아니야 네가 석가야. 그거 들어보세요. 영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게 들리면 그건 완전히 네피림 되는 거다. 이렇게 명상 쪽 깔아서 하는데 교회는 눈을 못 떴어.

다카하시 목사님이 목상센타 놓고 기도한다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아니 유리에상이 그런 얘기하더라. 자기는 집중, 애들 살리고 싶다고. 그래 떼제가 일본 안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화해, 용서 이런 거 해서 영적문제 해결돼요. 인본주의 충만해서 전쟁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진안목상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거다. 제가 지나와 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아직도 김동권목사님은 이해를 못해.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인사하면서 '언제 오세요?' 하는데 제가 왜 갑니까? 보세요. 예원교회 즐겁습니다. 예원교회 프로그램 좋다. 왜냐면 성도들 빠져나가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예원교회 가양진 집사님 딸래미가 몽골 가는데 같이 갔다. 와서 몽골에서 같이 있는데 우리 보고 심심한가봐. 아무것도 안 해. 애가 나중에 입을 열더라. 아니 왜 죽전동부교회 아무 것도 안 해요. 예원교회 같으면 사진을 벌써 10번을 찍었겠다는거야. 임마누엘이 재미 없으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임마누엘이 웃기거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두고 보세요. 교회들 다 비기 시작할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안에 다가 청년들이 와서 목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거다. 내가 뭇 때문에 안양 갑니까? 다 떠날건데. 우리는 진안으로 가는거다. 진안이 나아. 차분하게 집중하는게 좋다. 죽전에서 새벽에 가면 두시간 조금 걸려.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월요일 새벽에 나오면 돼요. 토요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하다.

정말 기도해주시고. 제가 진안 장로님 보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했더니 우연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틀만 나면 땅 알아보러 다닌데. 천 몇 평 된대요. 천 몇 평 가지고 앞으로 청년들 엄청 들어올텐데 천 평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자고 했다. 법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손님이 온다. 중국에서도 집중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집중하러 갔을 때 좀 부동산 가서 집 나와 있는가 보라. 나왔대. 가보니까 괜찮아. 얼마 달라더냐 했더니 3억 정도 달라더라.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다. 왜냐면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죽일라고 했다.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작년에 교회를 못 나왔대. 의사가 그러더라. 한달이면 퇴원한다. 미치겠더라. 3개월을 누워있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죽음 앞에 섰다. 아, 인생이 긴 게 아니구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애인 줄 알았어. 왜냐면 김동권목사님 건강하고 류광수목사님은 30년 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구나. 결단할 때는 빨리 움직여야겠구나. 왜냐면 짧아요 인생이. 요즘에도 제가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래서 이러다 갈 수 있겠다 생각된다. 그래서 이제 전처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겠다. 꼭 기억해라. 교회문 닫아요. 못 막아요. 증거가 유럽이다. 그런데 안된다는 그 유럽에 부흥하는 곳이 떼제다. 뭐 하나? 아무것도 안 해. 목상하다. 애들보고 그러다. 네가 답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들 산티아고 보내거든요.

프랑스 생장에서 800키로 걷는 길이다. 이번에 이상하게 마리아 전도사가 50일을 잡아놨어. 왜 50일 잡았나 했더니 떼제 들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떼제 들어간다. 그래 가보라. 목상이 뭔가를 보라.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적고 여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진안에 미션홀을 놓고도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로제 목사 집에서 떼제공동체가 시작된거다. 일단 우리가 큰 땅 얻지는 못해도 미션홀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한다.

전도자의삶 Check List

전도자의 삶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오늘의전도	아침에 1전도기획 10점								
	자료를 전달하면 10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제시 10점								
오늘의말씀	복음메시지를 듣거나 읽기 10점								
	하루에 성경 3장이상 읽기 10점								
	성구를 한 절씩 암송 10점								
기도의 내용을 적고 정시기도 10점									
10분이상 호흡 기도 10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10점									
공부, 독서 10분 이상 했으면 10점									
하루의 점수 합계 (100점 만점)									

대안예수교장로회 죽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